

# B급 감성 '엠브렐라...' 애잔한 직장생활 '종종소'

(넷플릭스)

반전의 묘미 있는 '엠브렐라...' 인종차별 맞선 웨이브 '왓치맨' 왓차 '아무르' 노부부의 사랑 티빙 '아이돌 받아쓰기' 편편

"XX!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현실 상황에 가까운 사실적인 묘사로 화제에 오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D.P.' 속 대사이다.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채널 등 익숙한 플랫폼의 작품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거친 욕설의 대사가 제법 등장한다. 이는 폭력적 현실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더욱 끌어들이는 'D.P.'만 있는 게 아니다.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표주자 넷플릭스는 물론 웨이브, 왓차, 티빙의 콘텐츠는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 못지 않게 다채롭다. 그 가운데서 '숨은' 핑작. 짧지 않은 추석 명절 연휴, 스포츠동아가 추천하는 OTT의 숨은 '핑작'('명작'의 '명'과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생겨난 말)을 가족과 함께 찾아보자. 정말 뛰어난 상상력과 감각으로 재미를 안겨주니, '핑작'이라 강조하련다.

## ●넷플릭스...B급 감성의 반전

#엠브렐라 아카데미 (주연 엘리엇 페이지, 톰 호퍼 등)



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초능력을 지닌 7남매에게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애들아, 애증을 접고, 손을 잡아라." 초능력을 가졌어도 싸워야 철이 드나 보다. 흔하디흔한 히어로물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핑작"이라고? "믿고 거른다"고? 천만에! "핑작"이라 불릴 만한 반전이 기다린다. 'B급 감성'까지 감칠맛을 더한다. 결국, 아버지들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

## #보디가드(주연 리처드 매든, 킬리 호스 등)



가장 핫한 미드 '왕좌의 게임'의 리처드 매든 출연작으로 알려졌다. 흥행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상흔에 시달리는 주인공이 자신을 전쟁터로 보낸 내무장관 경호에 나선다.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팽팽한 긴장감을 안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심리와 테러 위기가 조화를 이룬다. 자, 이제 끝나고 나면 1992년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보다 더 먼저 떠올릴 것이다.

## ●웨이브...소시민 히어로의 정의

#왓치맨(주연 레지나 킹, 제레미 아이언스 등)



1921년 인종차별 학살의 비극 '털사 사건'을 모티브 삼은 이야기. 2009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왓치맨'을 먼저 본다면 재미를 더욱 만끽할 수 있다.

2019년의 일부 백인들은 피부색으로 세상을 구분 지어 갖은 인종차별 범죄를 저지른다. 경찰은 가족까지 위협받고, 결국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 뺑주인으로 위장한 비밀경찰 안젤라와 동료 히어로들이 인종차별의 악에 맞서며 정의로운 활약을 펼친다.

## #프렌즈 더 리유니언

(주연 제니퍼 애니스톤, 커트니 콕스 등)

1994년부터 10년 동안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시트콤 '프렌즈'의 추억, 뉴욕

맨해튼 여섯 친구들의 우정을 그린 시트콤의 주역 제니퍼 애니스톤, 커트니 콕스, 매튜 페 등이 17년 만에 한 무대에 나섰다.

맨해튼 아파트를 재현한 무대 위에서 이들은 추억을 되새기며 눈시울을 붉힌다. 일부 에피소드의 대본을 함께 읽는 장면은 파스한 미소를 자아낸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시트콤으로 영어를 배웠다. 그런 인연 덕분에 방탄소년단도 특별출연했다.

## ●왓차...페이소스와 애잔한

#종종소(주연 남현우, 이과장, 강성훈 등)



시즌3 26부작 시리즈 드라마. 29살의 중소기업 신입사원 조중범과 직원들의 '웃픈' 직장생활기.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등 도무지 의욕을 내려야 낼 수 없도록 하는 노동환경, 사장 등 상사의 갑질, 부조리하고 사심 가득한 회사 운영은 일상사, 일방통행의 의사결정...

어디서 많이 보아온 광경 아닌가. 오죽 했으면 직장인들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자극한다"는 말이 나올까. 진한 페이소스가 정말 '웃프다'.

## #아무르

(주연 장 루이 트린티닝, 엠마누엘 리바)



80대 노부부의 깊은 사랑,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질긴 질병으로 세월에 하얗게 된 아내,

그럼에도 존엄을 지켜내려 애쓰는 아내를 위해 노년의 남편은 파스한 손을 내민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올지도 모를 죽음, 그 당혹스러움 앞에서 남편은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사랑이 결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은 아니어서, 부부는 오히려 사랑을 더욱 끌어안기 위해 절박한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

## ●티빙...특독 튀는 아이디어가 '썩썩'!

#드라마월드

(주연 하지원, 헨리, 리브 후스 등)

'한드'(한국드라마) 팬인 미국인 소녀 클레어가 한국드라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해피엔딩 결말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13부작이다.

악인 캐릭터는 꼭 벌을 받고야 마는 권선징악 메시지, 앙숙인 남녀 주인공이 난데없이 사랑에 빠지는 '기승전 로맨스' 등 한국드라마만의 특징을 한 데 모았다. 매회 '사랑의 불시착' '응답하라 1988' '뿌리 깊은 나무' 등 인기 드라마의 명장면을 패러디한다.

## #아이돌 받아쓰기 대회

(출연 붐, 슈퍼주니어은혁, 세븐틴 승관 등)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도레미파켓'(놀토)의 '아이돌 버전'. 은혁과 승관, 예소 카이 등 아이돌 멤버들이 노래를 듣고 일부 구간의 가사를 알아맞히는 게임.

공책과 볼펜은 필수 준비물. 노랫말 받아쓰기가 쉬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행여나 노래의 랩 구간이 문제이면 긴장감은 두 배. 1990년대 추억의 노래부터 최신곡까지 다채로운 온 가족이 귀 기울일 만하다. 엔터테인먼트

OTT	멤버십 단계별 월 이용 요금 (원·동시 접속 가능 인원)			주요 OTT 이용 요금 및 콘텐츠 감성 등 현황		대표 콘텐츠	콘텐츠 감성	주요 콘텐츠 제휴
	베이직	스탠드	프리미엄	OTT	콘텐츠			
NETFLIX 넷플릭스	9500(1)	12000(2)	14500(4)	시리즈 '킹덤'·'D.P.', 영화 '승리호'	오리지널 콘텐츠	CJ ENM		
wavve 웨이브	7900(1)	10900(2)	13900(4)	시리즈 '유 레이즈 미 업', 예능 시리즈 '노는 언니 2'	지상파 방송, 영국 BBC 콘텐츠	KBS 등 지상파 방송사, 미국 HBO		
WATCHA 왓차	7900(1)		12900(4)	시리즈 '킬링 이브', 히치콕-왕웨이비(왕가위) 대표작	고전영화, 독립단편영화, 미국 HBO 시리즈	미국 HBO		
TVING 티빙	7900(1)	10900(2)	13900(4)	시리즈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예능 시리즈 '여고추리반'	tvN·넷플 등 케이블채널 콘텐츠	CJ ENM		

# BTS·윤여정 또 하나의 역사를 쓰다

'다이너마이트'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윤여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그룹 방탄소년단과 배우 윤여정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란히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 미국 빌보드 차트 연속 1위와 아카데미 수상 등 세계적인 성취를 잇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16일 방탄소년단은 팝음악 전문지 미국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올려놓았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이다. '다이너마이트'는 이들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첫 영어 노래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3주 1위를 차지했다.

롤링스톤이 2004년 처음 작성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목록은 팝음악계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2010년 개정판 이후 올해 순위를 재정비했다. 가수와 프로듀서, 평론가 등 음악전문가 250여명이 설문에 참여한 꼽은 목록이다. '다이너마이트'는 346위에 올랐다. 롤링스톤은 "팝음악계의 주도권을 뒤흔들며 세계를 정복한 한국그룹의 랜드마크"라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보컬이 돋보인다"고 호평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힌 윤여정(왼쪽 사진)과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에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올린 방탄소년단. 사진출처 | 타임 홈페이지·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이런 목록에서 '솔의 여왕' 어서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Respect)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로 꼽혔다.

윤여정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미나리'로 올해 4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영국 아카데미상 등 다양한 영화상을 휩쓸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미나리'로 올해 4월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영국 아카데미상 등 다양한 영화상을 휩쓸었다.

그는 타임이 매년 '예술가'(Artist), '아이콘'(Icon), '개척자'(Pioneer)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거물'(Titans) 부문에 올랐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와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정신적 중압감으로 출전을 포기했던 미국의 체조 스타 시몬 바일스 등이 함께 꼽혔다.

윤여정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늘 해운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칭찬을 받았다"면서 "이번 소식에 나 자신도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건대 (제가)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의 '예술가' 부문에 선정된 '미나리'의 스티븐 연은 "윤여정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료됐다"면서 "그만큼 깊은 자의식으로부터 넘쳐나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지도자' 부문에 올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연예뉴스 HOT 5

### 송중기·박소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MC



배우 송중기와 박소담이 제 2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진행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16일 "두 사람이 10월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사회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2008년 '쌍화점'으로 데뷔한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드라마 '빈센조' 등을 연이어 흥행시켰고, 현재 영화 '보고타' 촬영 중이다. 박소담은 영화 '검은 사제들', '기생충' 등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 소유진, '슈퍼맘이 돌아왔다' 첫 주자로



소유진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맘이 돌아왔다'(슈돌)의 추석 특집 편에 출연한다. 16일 제작진에 따르면 소유진은 19일 방송하는 '슈퍼맘이 돌아왔다'의 1편 주인공으로 아이들과 함께 출연한다. 2013년 백종원 대표와 결혼해 슬하에 1남2녀를 둔 소유진은 현재 '슈돌'에 내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제작진은 "소유진 등 출연자들을 통해 '슈퍼맘'들의 육아법과 고충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룹 B.A.P 출신 방용국 1인 기획사 설립



그룹 B.A.P 출신 싱어송라이터 방용국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16일 방용국은 SNS에 자신은 세운 1인 기획사 이름인 '콘센트'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2019년 8월 대체복무를 시작해 5월 소집해제된 방용국은 현재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글로벌 기업 워너뮤지그룹 산하 음원 유통사인 'ADA'와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2012년 B.A.P로 데뷔해 2019년 1월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해왔다.

### 정지영 감독, 스태프 보조금 횡령 무혐의 결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 감독이 스태프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의 결론을 받았다.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지영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 보조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9일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의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보조금을 지급 취지에 반해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 NCT 127 새 앨범 212만장 선 주문 기록



그룹 NCT 127이 새 앨범으로 약 212만장의 선 주문량을 기록했다. 1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발매하는 NCT 127 정규 3집 '스티커' 선 주문 수량이 전날 212만장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룹의 앨범 자체 최다 판매 기록으로, 전작 '엔시티 #127 네오 존'의 약 53만장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NCT 127은 2016년 데뷔 이후 꾸준히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수치를 경신해왔다. 이들은 타이틀곡 '스티커' 무대를 컴백 당일 미국 CBS 인기 토크쇼 '더 레이트 트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에서 공개한다.